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 모색

— 駕洛國號의 異表記들을 중심으로

權 仁 瀚

I. 序論

국내외의 古典籍에 나타난 國名·人名·地名·官職名 등의 고유명사 표기들은 고대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들이 국어사 연구에 이용되기에는 적잖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의 대다수가 아직도 미해독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異表記들 사이에 音讀對釋讀의 대비가 이루어지거나, 同音 또는 類音關係를 想定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국어의 편린이나마 재구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의 각 부문에 걸쳐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며,¹⁾ 이 방면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는 고유어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에 못지 않게 고대국어의 한자음을 재구하려는 노력들

1) 고대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에 대한 종합적 논의로는 李基文(1972a)의 제5장을 들 수 있는데, 이 밖에도 李基文(1968), 朴炳采(1968), 都守熙(1987, 1989, 1994) 등을 이 방면의 주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도 고유명사 표기를 포함한 각종의 借字表記 자료들을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살필 수 있다. 즉, 李基文(1961, 1972a)는 지명 표기에서 「勿」字로 '물'[水]을 나타내었거나, 「吉」字로 '갈·'[永]을 나타낸 사실을 바탕으로 漢音의 舌內入聲韻尾(-t)가 한국한자음에서 종성 /ㄹ/로 반영된 연원이 신라시대까지 소급됨을 논의한 바 있고, 金完鎭(1980), 李敦柱(1990) 등에서 鄉歌의 用字들 중 止攝의 齒音字인 「賜」, 「史」, 「次」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시, *지'로 재구될 수 있음을 究明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李敦柱(1990)은 고유명사 표기에 등장하는 同類字 「斯」, 「思」, 「自」 등도 모두 *치로 재구될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兪昌均(1980, 1983, 1991) 등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지명을 포함한 고유명사 자료를 중심으로 각종의 이표기들이 보여주는 互用關係를 검토함으로써 고대 한자음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바 있으며, 宋基中(1995), 박창원(1996)도 '一云, 一作' 등으로 열거되는 이표기들 중에서 同音關係를 상정할 수 있는 예들을 중심으로 고대의 한자음에 대한 흥미있는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을 통하여 고대국어의 한자음이 후기 중세국어의 현실한자음 체계와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대국어 한자음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구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漢語音韻學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와 방법론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대의 고유명사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이표기를 확보하고 있는 예의 하나인 駕洛國號의 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이들이 고대 한국한자음의 재구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가락국호 이표기에 쓰인 글자들이 모두 音讀字이므로(박창원 1987:60) 각 음절의 用字들 상호간에 同音 또는 類音關係가 성립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들의 同音性이 한어의 중고음과 상고음 중 어느 音系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는지를 究明함으로써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II. 資料의 紹介와 檢討

駕洛國號의 이표기들에 대해서는 이마 梁柱東(1943/1954:347~350)과 李炳銑(1982:79~83, 227~230)에서 상당 부분 소개된 바 있다. 우리의 논의를 위하여 이들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1) 三國史記

- ①春二月,加耶賊圍馬頭城,遣阿滄吉元,將騎一千擊走之.<卷一·婆娑尼師今十五年>
- ②九月,加耶人襲南鄙,遣加城主長世,拒之,……<卷一·婆娑尼師今十七年>
- ③春正月,舉兵欲伐加耶,其國主遣使請罪,乃止.<卷一·婆娑尼師今十八年>
- ④春二月,加耶寇南邊.秋七月,親征加耶.……<卷一·祇摩尼師今四年>
- ⑤秋八月,遣將侵加耶,王帥精兵一萬,以繼之.……<卷一·祇摩尼師今五年>
- ⑥春二月,加耶國請和.<卷二·奈解尼師今六年>
- ⑦秋九月,浦上八國謀侵加羅,加羅王子來請救.<卷二·奈解尼師今十四年>
- ⑧三月,高句麗與靺鞨入北邊,……我軍與百濟加耶援兵.……<卷三·照知麻立干三年>
- ⑨春二月,加耶國送白雉,尾長五尺.<卷三·照知麻立干十八年>
- ⑩春三月,加耶國王遣使請婚,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卷四·法興王九年>
- ⑪秋九月,王出巡南境拓地,加耶國王來會.<卷四·法興王十一年>
- ⑫三月,王巡守次娘城,……先是,加耶國嘉悉王,製十二弦琴,……其樂名加耶琴.<卷四·眞興王十二年>
- ⑬秋九月,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卷四·眞興王十五年>

2) 여기에서는 古典籍에 나오는 기록들을 모두 소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三國史記』의 기록은 李丙燾(역)(1983)의 색인을 이용하여 보완한 것이며, 『三國遺事』의 기록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研究室(편)(1980)의 색인에 의거하여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밑줄 필자. 원문의 첨주는 [] 속에 묶어서 표기함.

- ⑭九月,加耶叛,王命異斯夫討之.<卷四·眞興王二十三年>
- ⑮二十五日,……奈麻緊周子能晏,年二十五歲,呈加耶之舞.<卷六·文武王八年冬十月>
- ⑯夏五月,……加耶郡置金官小京.<卷七·文武王二十年>
- ⑰八月,創加耶山海印寺.<卷十·哀莊王三年>
- ⑱西,加耶岬岳[馬尸山郡]<卷三十二·祭祀·中祀>
- ⑲三弦,一玄琴,二加耶琴,三琵琶<卷三十二·樂>
- ⑳加耶琴雖與箏制度小異,而大槩似之,羅古記云,加耶國嘉實王見唐之樂器而造之,……王曰,加耶王淫亂自滅,樂何罪乎.……于勒所製十二曲,一曰下加羅都,二曰上加羅都……<卷三十二·樂·加耶琴>
- ㉑古寧郡,本古寧加耶國,新羅取之,爲古冬攬郡[一云古陵縣],景德王改名,今咸寧郡.<卷三十四·地理一>
- ㉒金海小京,古金官國[一云伽落國,一云伽耶].<卷三十四·地理一>
- ㉓咸安郡,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以其地爲郡,景德王改名,今因之.<卷三十四·地理一>
- ㉔高靈郡,本大加耶國,自始祖伊珍阿鼓王[一云內珍朱智],至道設智王,凡十六世,五百二十年,眞興大王侵滅之,以其地爲大加耶郡,景德王改名,今因之.<卷三十四·地理一>
- ㉕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登九峰,望駕洛九村,遂至其地開國,號曰加耶,後改爲金官國.<卷四十一·列傳·金庾信>
- ㉖智度路王時,爲沿邊官,襲居道權謀,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卷四十四·列傳·異斯夫>
- ㉗眞興王命伊滄異斯夫襲加羅[一作加耶]國,時斯舍年十五六……先入旃檀梁[旃檀梁城門名,加羅語謂門爲梁云]……王策功賜加羅人口三百……<卷四十四·列傳·斯多舍>
- ㉘最後帶家隱伽耶山海印寺<卷四十六·列傳·崔致遠>
- ㉙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阿羅使來請救,……<卷四十八·列傳·勿稽子>

(2) 三國遺事

- ①駕洛國[一作伽耶,今金州]<卷一·王曆>
- ②五伽耶[按駕洛記贊云,垂一紫纒,下六圓卵,五歸各邑,一在茲城,則一爲首露王,餘五各爲五伽耶之主,……]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古寧伽耶[今咸寧],

- 大伽耶[今高靈],星山伽耶[今京山一云碧珍],小伽耶[今固城]<卷一·五伽耶>
- ③ 駕洛國海中有船來泊.<卷一·脫解王>
- ④ 而六卵化爲童子,……始現故諱首露,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國稱大駕洛,又稱伽耶國,卽六伽耶之一也.<卷二·駕洛國記>
- ⑤ 同見皇天上帝,謂曰,駕洛國元君首露者……<卷二·駕洛國記>
- ⑥ 有制曰,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衡王之降于當國也.<卷二·駕洛國記>
- ⑦ 唯此駕洛國之昔曾亡,則替否之言之有徵矣.<卷二·駕洛國記>
- ⑧ 金官國亦名駕洛國.<卷三·金官城婆娑石塔>
- ⑨ 古記云,萬魚寺者,古之慈成山也,又呵耶斯山[當作摩耶斯,此云魚也],傍有呵囉國.<卷三·魚山佛影>

(3) 기타

- ① 伽耶³⁾山<慶尙道地理志·星州牧>
- ② 弁者,駕洛也.駕洛者,伽耶也.東俗,凡冠幘之尖頂者,通謂之弁,亦謂之駕那……新羅時駕洛國,在今金海,或稱加羅,或稱伽耶……必其巾幘,特爲尖頂之制,故號之曰駕羅國,而中國之人,譯之以文,則謂之弁辰也……<我邦疆域考卷二·弁辰考>
- ③ 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廣開土大王碑>
- ④ 循海岸水行,歷韓國乍南乍東到其北岸,狗邪⁴⁾韓國<三國志·魏志東夷傳>
- ⑤ 問之曰,何國人也.對曰,意富加羅國王之子,名都怒我阿羅斯等.<日本書紀卷六·垂仁天皇二年>
- ⑥ 因以平定比自怙·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日本書紀卷九·神功皇后四十九年>
- ⑦ 加羅與新羅境際,而被連年攻敗,任那無能救援,由是見亡,其南加羅,蕞爾狹小,不能卒備,由是見亡.<日本書紀卷十九·欽明天皇二年>

이상 국내외의 古典籍에 나타난 가락국호의 이표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三國史記』에는 대부분 ‘加耶’로 표기되나, 일부 ‘加羅(⑦) ⑳ ㉞

3) 원문에는 ‘王+耶(橫)로 기록되어 있으나, 「耶」와 같은 글자이다.

4) 「邪」는 「耶」의 本字. 梁注東(1943/1954:347) 참조.

㉗), 加良(㉓), 伽落(㉔), 駕洛(㉕), 伽耶(㉖)’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㉖의 기록에서는 ㉗의 원문과 비교하여 ‘加羅=阿羅’로 표기된 듯하지만, 이것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예인 듯하다. 왜냐 하면, 『三國遺事』의 五伽耶에 대한 기록(㉔)에서 볼 때, 문제의 ‘阿羅’는 ‘阿羅伽耶’의 略稱으로 보아야 할 듯하기 때문이다. 「阿」의 (MC) 果開一平歌影/烏何 ⇒ /ʔa平/, (AC) 歌影平 (T)·â (K)·â (C)·a (A)·ar (W)ai 참조.⁵⁾ 따라서 필자는 ‘阿羅’는 가락국호의 이표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三國遺事』에는 대부분 ‘駕洛’으로 표기되나, 일부 ‘伽耶(㉑ ㉒ ㉔ ㉖), 呵囉(㉗)’로도 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加羅’라는 표기가 나타나지 않음이 특징적이다.

셋째, 기타의 典籍에서는 ‘珈瑯(㉑), 駕洛(㉒), 加羅(㉓ ㉔ ㉕ ㉖ ㉗), 駕羅(㉘), 駕那(㉙), 狗邪(=耶)(㉚)’ 등으로 나타난다. ㉚는 중국측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㉒는 상당히 後代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기록들에만 나타나는 ‘狗邪, 駕羅, 駕那’ 등을 자료로 이용함에 있어서는 여타의 표기들과는 구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각종의 古典籍에 나타난 駕洛國號의 異表記들은 ‘駕洛, 伽落, 加良, 加羅, 呵囉, 駕羅, 駕那, 加耶, 伽耶, 珈瑯, 狗邪(=耶)’ 등의 十一種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III. 異表記 用字들의 同音關係

앞에서 확인한 11종의 駕洛國號는 모두 일단 동일한 음의 다른 표기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첫 음절과 둘째 음절로 나누어 각 글자들의 同音性 與否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1 ‘駕=伽=加=阿=珈=狗’의 同音關係

5) 中古音(MC), 上古音(AC)의 音系 提示 方法에 대해서는 각주 6)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먼저 첫 음절에 사용된 글자들의 中古音과 上古音의 音系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中古音의 음운론적 해석은 平山久雄(1967)에 의한 것이며, 上古音의 음가 추정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T) 董同龢, (K) Karlgren, (C) 周法高, (A) 藤堂明保, (W) 王力的 순으로 제시할 것이다.⁶⁾

- ①「加」: (MC) 假開二平麻見/古牙 ⇒ /ka平/
(AC) 歌見平 ⇒ (T)ka (K)ka (C)kra (A)kār (W)keai
- ②「珈」: (MC) 假開二平麻見/古牙 ⇒ /ka平/
(AC) 歌見平 ⇒ (T)— (K)ka (C)kra (A)kār (W)keai
- ③「伽」: (MC) 假開二平麻羣⁷⁾/求迦 ⇒ /ga平/
(AC) 歌羣平 ⇒ (T)— (K)— (C)— (A)gār (W)geai
- ④「駕」: (MC) 假開二去禡見/古訝 ⇒ /ka去/
(AC) 歌見去 ⇒ (T)ka (K)ka (C)kra (A)kār (W)keai
- ⑤「呵」: (MC) 果開一平歌曉/虎何 ⇒ /ha平⁸⁾/
(AC) 歌曉平 ⇒ (T)— (K)xā (C)xa (A)har (W)hai
- ⑥「狗」: (MC) 流開一上厚見/古厚 ⇒ /kau上/
(AC) 侯見上 ⇒ (T)kūg (K)ku (C)kew (A)kug (W)ko

위의 각 글자들의 中古音 및 上古音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古音을 기준으로 하면, 「加」, 「珈」, 「伽」, 「駕」의 네 글자가 假攝에

6) (T) (K) (C)는 周法高(주편)(1973)에 의하며, (W)는 王力(1985)에, (A)는 藤堂明保(1967)의 추정에 의한다. 중고음 뒤에는 '攝開合等呼聲調韻聲母/反切'로 구성된 音位를 제시하며, 상고음 뒤에는 '韻部聲母聲調'로 구성된 音位를 제시한다. 각 글자들의 音位 提示를 위해서는 丁聲樹(편)(1981)과 李珍華, 周長楫(편)(1993)을 이용하였다.

7) 이 글자는 李珍華, 周長楫(편)(1993) 및 丁聲樹(편)(1981)에 나와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廣韻』과 『集韻』의 反切이 '求迦切'인데, 「迦」의 중고음 음위가 '假開二平麻見'이고, 「求」가 羣母字임을 고려하여 「伽」의 중고음 음위를 위와 같이 추정한 것이다. 상고음의 추정도 「迦」의 음위에 의한 것이다.

8) 又音 去聲.

속하는 글자인 반면, 「呵」는 果攝에, 「狗」는 流攝에 속하는 글자인 차이를 보인다.

둘째, 上古音을 기준으로 하면, 「加」·「珈」·「伽」·「駕」·「呵」의 다섯 글자가 歌部에 속하는 글자인 반면, 「狗」만은 侯部에 속하는 글자인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락국호의 각종 이표기들에서의 첫 음절 한자가 동음관계를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이 中古音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上古音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위의 자료에 나타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할 때는 일단 상고음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 왜냐 하면 中古音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일한 攝에 속하지 않던 「呵」字가 上古音을 기준으로 할 때 비로소 동일한 韻部에 소속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果攝字인 「呵」가 여타의 假攝字들과 同音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최희수(1986:198)에서 “(※果攝의) 조선한자음에서의 *oa*는 한어중고음과 대응되고 *a*와 *oai*는 한어상고음과 대응된다.” 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呵」의 한국한자음이 후술될 것처럼 「呵」의 聲符「可」에 유추된 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고대의 한국한자음이 상고음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절대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단 중고음을 바탕으로 가락국호 이표기들의 첫 음절을 **ka*로 재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재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위의 자료에서 全濁의 羣母字(*g-/*)인 「伽」가 여타의 全清의 見母字(*/k-/*)들과 동음관계를 이룬다는 사실로부터 한국한자음에서의 有·無聲間 對立의 상실이 매우 이른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한 예에서 관찰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직은 일반화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cf. 박창원 1996). 앞으로 계속적인 고찰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둘째, 「呵」의 俗音 ‘가’의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呵」의 聲母는 曉母이고,⁹⁾ 上古音에서도 中古音과 마찬가지로 見母, 羣

9) 실제로 이 글자의 한자음을 『東國正韻』에는 ‘항평, .항去’로 나타나 있고, 『全韻玉篇』, 『新字典』 등에서는 ‘하俗가’로 기록함으로써(南廣祐(편)(1995:2) 참조) 「呵」가

母, 曉母 사이의 대립이 유지된다. 따라서 「呵」의 음이 「加」·「珈」·「駕」·「伽」 등과 동음관계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俗音(=鄉音)일 가능성이 높는데,¹⁰⁾ 이 俗音을 가락국호의 한 이표기인 「呵囉」에 代入할 때에 비로소 여타의 이표기들과의 동음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이 삼국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중국측 史書(三國志·魏志東夷傳)에 보이는 「狗」만은 侯部에 속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동음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로서는 이 글자가 어떤 연유로 가락국호의 표기에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막막하다.

3.2 ‘洛=落=良=羅=囉=那=耶=哪’의 同音關係

다음으로 둘째 음절에 쓰인 글자들의 中古音과 上古音의 音系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洛」: (MC) 宕開一入鐸來/盧各 ⇒ /lak入/
(AC) 鐸來入 ⇒ (T)lâk (K)glâk (C)lak (A)lak (W)lak
- ②「落」: (MC) 宕開一入鐸來/盧各 ⇒ /lak入/
(AC) 鐸來入 ⇒ (T) — (K)glâk (C)lak (A)lak (W)lak
- ③「良」: (MC) 宕開三平陽來/呂張 ⇒ /liang平/
(AC) 陽來平 ⇒ (T)liang (K)liang (C)liang (A)liang (W)liang
- ④「羅」: (MC) 果開一平歌來/魯何 ⇒ /la平/
(AC) 歌來平 ⇒ (T)lâ (K)lâ (C)la (A)lar (W)lai
- ⑤「囉」: (MC) 果開一平歌來/魯何 ⇒ /la平/
(AC) 歌來平 ⇒ (T) — (K) — (C) — (A)lar (W)lai
- ⑥「那」: (MC) 果開一平歌泥/諾何 ⇒ /na平/¹¹⁾
(AC) 歌泥平 ⇒ (T)nâ (K)nâr (C)na (A)nar (W)nai
- ⑦「耶」: (MC) 假開三平麻以/以遮 ⇒ /ia平/
(AC) 魚餘平 ⇒ (T) — (K)žjâ (C)Yrav (A)đrâg (W)šia

본래 曉母字(h-/)임이 드러나고 있다.

10) 이것은 아마도 「呵」의 聲符 ‘可’에 유추되어 잘못 읽히게 된 俗音일 것이다

11) 又音 上聲去聲.

⑧「那」: (MC) 假開三平麻以以遮 ⇒ /ia平/

(AC) 魚餘平 ⇒ (T) — (K) — (C) — (A)ɸiŋg (W)ŋia

위의 글자들이 동음관계를 이룬다고 할 때, 聲母와 韻母 모두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첫째, 聲母의 문제는 來母字(「洛」·「落」·「良」·「羅」·「囉」)와 泥母字(「那」), 더 나아가 以母字¹²⁾(=喻母字: 「耶」·「那」)들과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韻母의 문제는 入聲字(「洛」·「落」)와 舒聲字(「良」·「羅」·「囉」·「那」·「耶」·「那」)들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래에 聲母와 韻母의 경우로 나누어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주로 상고음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3.2.1 聲母의 문제

먼저 聲母의 동음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주로 來母 對 以母의 대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된 바 있다.

첫째, 梁柱東(1943/1954:347)에서 “「那耶」는 「야」에 正音借되기도 하나, 「라」에 轉音借됨이 더 普通이다.” 라고 함으로써 來母와 以母의 동음관계를 轉音借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轉音借 云云하는 설명은 오늘날 받아들이지 않음이 일반적이다.¹³⁾

둘째, 李炳鎡(1982:228)에서 ‘加羅’를 kara로 보되, ‘加耶 또는 伽耶’는 kara의 第二音節 r이 구개음화하여 kaŋa > kaja로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후행하는 모음이 /i/이거나, 반모음

12) 본고에서 말하는 以母字란 『韻鏡』의 喻母(喉音 清濁) 중에서 四等到 소속된 자들만을 가리킨다. 즉, 『廣韻』에서의 反切上字가 ‘以, 羊, 余, 餘, 戈, 營’ 등인 글자들을 말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喻母, 喻A, 喻以母’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자세한 것은 李敎柱(1995:257~261)의 논의를 참조), 여기에서는 李珍華 周長楫(編)(1993)에 따라 以母로 칭하기로 한다.

13) 鄉歌 解讀에서의 이른바 ‘一字一音의 原理’(金完鎭 1980:12~16)는 바로 無涯 선생의 『古歌研究』에 나타난 通借, 轉借, 略借, 戲借 등의 설명이 갖는 恣意性을 비판한 것이다.

/j/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구개음화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문제의 r에 후행하는 모음은 /a/일 뿐이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이 설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같은 책에서 재구된 *nara, *sara/səra系 어휘들에는 왜 문제의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로 보인다.

셋째, 李基文(1961:53)에서 ‘加羅> 加耶, 徐羅伐> 徐耶伐> 徐伐’의 예를 들어 母音間의 일부 *r-의 消失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⁴⁾ 필자는 이 설명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첫째, ‘加羅> 加耶’類의 변화가 전반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중세국어에는 여전히 ‘나라’類의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왜 이들은 문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누리, *모리, *나리」 등이 각각 「:늪, :포, :내」로 변화한 예들을 관련 증거로 삼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CVri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변화의 환경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¹⁵⁾ 著者 스스로 거두어들였듯이, 이 견해도 來母 對 以母의 동음관계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논의로는 박창원(1987), 都守熙(1994)가 있다. 먼저 박창원(1987:60, 66~68)에서 ‘伽耶’의 「耶」는 /r/의 활음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아동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해라, 가라’ 등을 [해야, 가야]로 발음하는 현상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都守熙(1994:244~250)에서는 ‘羅> 耶’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r) y/____ V#’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 규칙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음의 예들을 들고 있다.

- ① *kari> *kayi> kɛi> kay> key> ke(浦)
- ② *kuri> *kuyi> kui> kiy(城)
- ③ *nari> *nayi> nai> nay> ney> ne(川)

14) 그러나 개정판에는 이 부분의 설명이 삭제되어 있다. 이것은 이 설명에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15) ‘거루(巨老=鵝)> 거유’의 예만이 위의 설명에 부합되는 예가 될 뿐이다.

- ④ *nuri > *nuyi > nui > nuy > nüy > nü(世)
 ⑤ *mori > *moyi > moi > moy > möy > mö(世)

이러한 견해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¹⁶⁾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보다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어의 음운변화와 무관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대국어 연구는 한어의 음운체계에 의지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만약 중국 또는 상고한어에 이와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면, 문제의 ‘羅耶’類의 변화가 과연 국어의 고유한 변화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리득춘(1985/1994:59)에서는 가락국호 이표기들에서 來母字와 以母字가 서로 통한 것은 上古漢語에서 「耶」가 /r/과 비슷한 음을 가졌던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기존의 국어 내부의 자생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직접 상고음의 音相과 관련을 지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이다. 다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이 아쉽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俞昌均(1991:456)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지명 표기에서 <耶-良-落>과 같은 互用的 系列이 성립됨을 확인한 후, <良-落>의 代用音이 /l/이므로 <耶>도 /l/로 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耶」의 음을 /l/로 가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 기존의 논의들에서 보인 來母 對 以母의 동음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어중 *r-의 탈락, r의 구개음화 또는 활음화라는 국어의 자생적인 변화로 보는 설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代案은 무엇인가.

필자는 「落」、「落」、「良」、「羅」、「囉」에서의 來母와 「耶」、「那」에서의 以母 사이의 동음관계가 국어의 自生的인 변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리득춘

16) 박동규(1995:138)에서는 “어중의 「ㄹ」초성이 완전히 탈락한 결과로 생기는 이른바 Hiatus를 피하기 위하여 만모음 /l/로 그 자리를 메운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 제시된 견해들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5/1994)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以母의 上古音의 特性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耶」의 한국 한자음이 ‘야’로 변함이 없었다고 보는 것에는 어쩌면 이른바 ‘현대적(또는 중세적) 편견’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以母의 상고음 음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以母의 음가에 대해서는 漢語 音韻學者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Karlgren, 董同龢 등은 *d-를 가정한 뒤에 *d+i> yi> i로 변화한 것으로 설명하였고, 藤堂明保는 폐쇄가 약한 *d-로 상정하여 *d+i> yi> ∅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였다(李敦柱 1995:257~259). 이러한 설명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定母(/d-/)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定母도 介音 -i-와 결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환경에 있는 定母는 왜 반모음으로 변화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Karlgren의 경우는 定母를 *d'-로 재구하였고, 藤堂明保의 경우는 定母는 *d-로 잡은 대신 以母를 폐쇄가 약한 *d-로 재구한 바 있다. 그러나 Karlgren의 유성 유기음설에 대해서는 오늘날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다는 점에서, 藤堂明保의 가설에는 *d+i> yi라는 변화가 음성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 王力(1985:22~23)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들이 가진 문제점을 고려하여 以母의 음가를 [ʃ]로 재구한 新說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불어의 *fille*[fi:j], *bouillon*[bu'jɔ̃], *tailler*[ta'je] 등에서와 같이 소위 l-mouillé를 가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로망스 제어에서 l의 구개화음이 자주 [j]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원용한 셈인데, *d-, *d- 등으로 가정한 논의들에서 이들이 i와 결합하여 yi로 변화한다는 설명이 음성학적으로 타당한가, 또는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嚴學寔(1984)에도 제시되어 있다. 그는 以母가 음성적으로 *r- 혹은 *l-에 가까운 음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王力(1985:23)의 脚註 ③에서 李方桂(1971)도 以母의 음가를 某種의 r로 추정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余迺永(1985:271)에서의 소개 및 비판을 참조하건대, 李方桂의 논의의 핵심은 以母에 대하여 상고음에서 중고음에 이르는 변화를 *r->*ji-의 변화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마지막으로 周法高도 以母

의 음가를 *r(i)- 또는 *vr(i)-로 추정하고 있다(周法高(주편) 1973:ix). 이상에서 보듯이 이母的 음가를 流音의 일종으로 본 견해가 최근에 올수록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王力(1985)의 견해에 따라 상고음에서 이母的 음가를 *l로 가정하게 되면, 국어의 자생적인 변화를 가정하지 않고도 가락국호의 이표기들에 나타난 來母와 이母的 동음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즉, 古代의 韓國漢字音에서 「耶」、「琊」類의 以母字가 상고음의 체계를 반영하여 *ʎag¹⁹⁾에 가까운 음을 가진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羅」、「囉」와 「耶」、「佻」、「琊」가 동음관계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증거들이 있다.

첫째, 앞서 제시한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三國遺事卷一·五伽耶>의 기록과 ‘國號曰徐羅伐又徐伐’<三國遺事卷一·新羅始祖 赫居世王>~‘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盧, 或云新羅’<三國史記卷三十四·地理一> 등의 기록에서 「羅」와 「耶」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烏丘山縣 本烏也山縣[一云仇道 一云烏禮山]’<三國史記卷三十四·地理一>의 기록에 보이는 「也」(以母)와 「禮」(來母)의 교체, ‘地育縣 本百濟地六縣 景德王改名 今北谷縣’<三國史記卷三十六·地理三>의 기록에 보이는 「育」(以母)과 「六」(來母)의 교체에서도 바로 以母와 來母가 동음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17) 필자는 아직 李方桂 선생의 논문을 구해 보지 못하였다.

李方桂(1971), “上古音研究”, 『清華學報』 9卷 1-2期合刊

18) 嚴學宥이나 李方桂의 가설에 따라 *r- 또는 *l-로 가정하더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19) 介母를 ‘-i-’로 한 것은 고대 한국한자음에서 介母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俞昌均(1980, 1983, 1991)의 논의를 참조. 그리고 王力의 추정과는 달리, 上古音 魚部의 韻尾 *g는 재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3.2.2에서 논의될 것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地理山~智異山’의 이표기 관계도 우리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도 來母字 「理」와 以母字 「異」가 동음관계를 이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三國史記』에서는 ‘地理山’으로만 나오고, ‘智異山’은 『高麗史』에 가서야 확인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이들이 동시대의 교체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이들은 百濟에서 전해 내려온 기록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관련 기록들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둘째, ‘日谿縣 本熱兮縣[或云 泥兮]’<三國史記卷三十四·地理一>, ‘軍威縣 本奴同覓縣[一云 如豆覓]’<三國史記卷三十四·地理一>의 자료가 보여주는 日母字(‘日’, ‘熱’, ‘如’)와 泥母字(‘泥’, ‘奴’) 사이의 교체도 우리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傍證이 될 수 있다. 이들의 교체는 이른바 ‘古音娘日二紐歸泥說’(李敦柱 1995:256~257)에 부합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즉, 중고음에서 구별되는 日母(/j-/), 泥母(/n-/)의 차이가 위의 지명 자료에서捨象되고 마는 것은 上古音에서 泥母, 娘母, 日母의 구별이 없고 그 음가가 모두 泥母로 추정된다는 위의 가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 한국 한자음의 체계가 상고음을 기반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유일한 泥母字인 ‘那’는 후대의 자료에 나오는 예라는 점에서 ‘徐那伐~徐羅伐’ 등의 자료에 유추된 표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 자료가 이른 시기의 한자어에 폭넓게 나타나는 ‘n(n) > r/# ___’ 또는 ‘n(n) > r/ ___ V’(예: 瑠璃~累利~孺留, 徐那伐~徐羅伐 등)²¹⁾의 음운 교체를 반영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체적으로 ‘駕那’加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駕那’가 ‘加羅’에 비하여 훨씬 후대에 나타나는 표기라는 점에서 여타의 이표기 예들과는 구별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3.2.2 韻母의 문제

韻母의 문제는 入聲字(‘洛’, ‘落’)들과 舒聲字(‘良’, ‘羅’, ‘囉’, ‘那’, ‘耶’, ‘那’)들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중고음을 기반으로 할 때는 이들의 同音性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상고음을 기반으로 한 고찰이 필연적이다.

①入唐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三國史記卷十, 興德王三年春正月>

②五岳 東吐舍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三國史記卷三十二, 祭祀·中祀>

③羅人沙浪燕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三國史記卷三十二, 樂·玄琴>

④秋八月 遣一吉浪閔郞稱賀 遂獻孔雀扇地理山竹箭<三國史記卷五十, 列傳·甄萱>

cf. ⑤求禮縣人之女有姿色居曷異山<高麗史卷七十一·樂二, 三國俗樂·百濟>

21) 자세한 것은 박창원(1987), 都守熙(1994)의 논의를 참조. 이 변화는 한어에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우리의 고유한 변화로 추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된 바는 의외로 많지 않다.

먼저 李炳銑(1982:82)에서 ‘加良, 駕落, 伽落’ 등이 모두 ‘加羅’와 한가지로 kara를 표기한다고 보아, 陽性韻尾 /-ŋ/과 入聲韻尾 /-k/가 표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로 鄉歌에서 「良」이 주로 어미의 ‘-라’를 표기한 점을 들고 있으나, 入聲韻尾가 非關與의이었다는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더군다나 실제 존재하는 /-ŋ, -k/의 음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명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논의가 가질 수 있는 恣意性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다음으로 박창원(1987:67~68)에서는 ‘加羅’의 두번째 형태소가 접미사일 경우의 ‘羅(落)’은 ‘랑’의 표기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落」, 「落」의 入聲韻尾가 關與의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進一步한 것이나, ‘加良’의 「良」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가락국호 이표기들의 둘째 음절에서 入聲韻과 舒聲韻이 동음관계에 놓이게 된 까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상고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우선 상고음의 韻部를 기준으로 둘째 음절에 쓰인 글자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체계성이 드러난다.

| 例字 | 韻의 性格 | 韻部 | 韻類 |
|---------|-------|----|-----|
| 耶, 琊 | 陰聲韻 | 魚部 | 第五類 |
| 良 | 陽聲韻 | 陽部 | |
| 洛, 落 | 入聲韻 | 鐸部 | |
| 羅, 囉, 那 | 陰聲韻 | 歌部 | 第七類 |

즉, 둘째 음절의 글자들 중에서 「羅」, 「囉」, 「那」를 제외하고 나면, 「耶」, 「琊」가 陰聲韻으로서 魚部, 「良」이 陽性韻으로서 陽部, 「洛」, 「落」이 入聲韻으로서 鐸部에 속하는데, 이들은 다시 陰·陽·入의 對轉을 이루는 第五類의 韻類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의 韻部는 각각 *-ag, *-aŋ, *-ak으로 재구되며, 『詩經』의 詩들에서 상호 押韻될 수 있다.²²⁾ 다만 「羅」, 「囉」, 「那」의 경우는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敦柱(1995:215~237)을 참조할 것. 특히, pp.232~236에

그 韻部가 *-*a(r)*로 재구되며, 祭部(*-*ad*)·元部(*-*an*)·月部(*-*at*)와 陰陽入의 對轉을 이루는 第七類로 분류되는 차이를 보인다(여기서의 韻類 분류체계는 王力과 藤堂明保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고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둘째 음절의 동음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李炳鎭(1982)의 주장과 비슷하게 「良」, 「洛」 등의 운미 /-ŋ/, /-k/가 非關與의이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의 당시 한자음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이것은 이표기들의 韻母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소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耶」, 「良」, 「洛」 등이 상고음에서 연구개음 계열의 운미를 가진다는 체계성까지 무시되어 버린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고대 국어에 대한 연구에서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락호치의 둘째 음절이 「耶」, 「良」, 「洛」, 「羅」 등의 어느 글자로도 만족하게 표기할 수 없는 音相을 가졌을 가능성이다. 말하자면 未知의 한 음절을 표기하기 위하여 동일 계열의 韻尾를 가진 글자들로 音寫한 것으로서 일종의 표기상의 共謀性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위의 네 부류의 글자들이 각기 고유한 한자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위의 글자들로써 音寫하고자 한 문제의 둘째 음절은 어떻게 재구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각 이표기들에 이용된 글자들의 당시 한국한자음이 일단 상고음의 체계에 근사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와 상당한 논리적 破綻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고음을 기준으로 할 때, 「耶」, 「良」, 「洛」 등의 운미가 연구개음 계열이라는 점과 「羅」의 운미도 流音의 /-r/로 재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Karlgren, 藤堂明保 등의 견해에 의거하여) 이들의 교체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가능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표기에 이용된 글자들이 보여주는 운미 /-g/, /-ŋ/, /-k/, /-r/ 중의 어느 하나로 재구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이들이 아닌 제3의 음으로 재구하는 방안이다. 첫째의 가능성은 위의 네 운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들의 상호 교체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음 계열의 /-g -ŋ -k/와 유음의 /-r/ 사이의 교체가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번째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연구개음 계열에 속하는 음으로서 /-r/과의 교체도 설명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I.P.A의 자음표에서 연구개음 계열의 후보음을 찾아보면, [x ʋ](fricative), [ɯ](approximant), [l](lateral approximant), [kʰ](ejective stop), [k ɟ](implosive)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자는 마찰음 [v]의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할 때, 한국한자음의 종성에 마찰음 계열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고대국어에 존재한 것으로 논의된²³⁾ 고유어에 있어서의 유성 마찰음 종성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음 위치가 동일한 음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연구개음 계열의 /-g -ŋ -k/ 등이 이표기에 등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流音 /-r/과의 교체에 대해서는 漢語拼音字母에서 /r/로 표기하는 음이 실은 舌尖後音(捲舌音)의 유성마찰음으로서 [ʁ]의 음가를 지닌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음은 엄밀히 말하면 마찰음으로 정의되는 셈이다. 따라서 조음 위치의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조음 방법의 면에서는 일치되므로 그들 상호간의 교체도 不可解한 것은 아닌 것이다.²⁴⁾ 따라서 우리는 가락국호의 둘째 음절을 *lav로 재구할 수 있고, 앞에서의 첫째 음절을 *ka로 재구한 것을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가락국호는 *ka-lav로 재구될 수 있는 것이다.²⁵⁾

23) 李基文(1972b)의 제11장의 논의를 참조. 이 논의에서는 고대국어의 유성 마찰음의 종성 *v의 존재 가능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24) 영어의 [f]음을 받아들일 때에 국어에서 자주 /ㅎ/으로 되는 현상이 바로 조음 위치는 다르지만 조음 방법이 일치됨으로써 빚어진 현상의 하나임을 참조.

25) *ka-lav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현재의 필자로서는 박창원(1987:68)에 제시된 '죽장의 국가'라는 의견에 동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는 李基文(1972b:96)에서 말한 종성 /ㅎ/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즉, 한어에서 차용된 ‘송’(俗), ‘송’(禰), ‘뎡’(笛), ‘쟝’(尺) 등에 나타나는 종성 /ㅎ/과 동류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한어에서 입성 운미 /-k/가 약화되어 /*-v/로 되었을 때 국어에 차용된 예들에서 종성 /ㅎ/을 보이고 있듯이 우리가 재구한 *-v도 종성 /ㅎ/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박창원(1987)에서 가락국호를 ‘*가랴’로 재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필자로서는 「耶」, 「良」, 「洛」, 「羅」 등의 글자들이 고대 한국한자음에서 각각의 종성으로 /-g/, /-ŋ/, /-k/, /-r/이나 이들에 가까운 음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자음 종성의 존재를 재구할 때에 비로소 위에서 말한 바의 교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동일한 종류의 자료들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우리의 추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의 사실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결론은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IV. 結論

지금까지 필자는 고대국어 연구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서 이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고대 한국한자음의 재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駕洛國號의 異表記들을 통하여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논의 자료가 고유명사 표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音讀字의 교체를 보여주는 예의 하나이고, 이들이 서로 同音 또는 類音關係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지나치게 단편적인 예를 바탕으로 한 것이나, 우리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의 古典籍에 나타난 가락국호의 이표기들은 ‘駕洛, 伽落, 加良, 加羅, 呵囉, 駕羅, 駕那, 加耶, 伽耶, 珈耶, 狗邪(=耶)’ 등의 十一種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락국호 이표기들의 첫째 음절에 쓰인 글자들의 상고음 및 중고음을 비교한 결과, 상고음의 체계에 의한 때에 각 글자들의 동음관계가 설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果攝字인 「𐄀」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俗音으로 나타난 글자일 가능성이 있어서 상고음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예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가락국호의 첫째 음절을 잠정적으로 중고음에 의거하여 *ka로 재구하였다.

셋째, 가락국호 이표기들의 둘째 음절에 쓰인 글자들의 상고음 및 중고음을 비교한 결과도 대체로 상고음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聲母의 문제로 來母字인 「羅」類와 以母字인 「耶」類의 교체를 국어의 자생적인 음운현상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耶」의 上古音 聲母가 모종의 流音으로 재구될 수 있다는 최근의 논의에 의지할 때에 위의 교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韻母의 문제로 陰聲韻(「耶」, 「羅」 등), 陽聲韻(「良」), 入聲韻(「洛」 등) 사이의 교체를, 이들이 가락국호의 둘째 음절을 音寫하기에 부적합한 음상을 가짐으로써 표기상의 共謀性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음상을 *lav로 재구하였다. 이는 「耶」, 「良」, 「洛」, 「羅」 등이 각각 상고음에서 /-g/, /-ŋ/, /-k/, /-r/로 재구된다는 사실과, /-g-, -ŋ-, -k/이 조음 위치상으로 *v와 연구개음 계열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r/이 조음 방법상으로 마찰음이라는 공통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각 글자들의 고대 한국한자음이 잠정적으로 상고음의 韻尾音 또는 이에 가까운 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우리의 논의를 종합할 때 가락국호의 音相을 *ka-lav로 재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v는 국어의 종성 /ㅎ/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논의의 대상을 국명 표기 하나로 함으로써 본고에서의 추론이 일반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또한 다양한 이표기 자료들이 시간적으로 동시대의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에 임한 문제점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통시적인 관계를 밝혀줄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동시대의 교체 자료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의 가설에 문제가 드러날 소지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이 방면에 대

한 계속적인 고찰을 통하여 갖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後記】

1. 본고의 교정이 끝난 뒤, 우연한 기회에 『애산학보』 13집(1992)에 실린 최윤갑 교수의 “이두음(吏讀音)에 잔존한 일부 한어(漢語) 상고음(上古音)”이란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논문의 1, 3장 부분이 간략하기는 하지만 본고의 논지와 일치함을 알게 되었다. 본문에서 최 교수의 논문을 언급하지 못한 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예시와 일부 논의에서 상기 논문과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음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본고에서 1음절은 중고음, 2음절은 상고음에 기반하여 당시 한자음을 재구한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 어휘 내부에서 한자음 재구의 기준음이 중고음과 상고음으로 같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필자의 생각은 상고음 운미 /-r/의 재구에 대하여 王力 같은 분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를 유보한다면, 1, 2음절 모두 상고음을 기준으로 본고의 결론과 비슷한 재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에 대한 보완은 후고로 미룬다.

參考文獻

- 姜信沆(1987), 韓國漢字音과 漢語上古音과의 對應可能性에 關하여, 『東洋學』 17
- 姜信沆(1996), 漢字音을 通해서 본 國語音韻史研究 問題, 『國語學』 27
- 古典研究室(편)(1980), 『三國遺事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完鎭(1981), 古代語 研究資料로서의 地名, 『三國史記 志의 新연구』, 新羅文化 宣揚會
- 南廣祐(편)(1995),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學校出版部
- 都守熙(1987), 『百濟語研究(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都守熙(1989), 『百濟語研究(I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都守熙(1994), 『百濟語研究(II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리득춘(1985), 漢語上古音在十六世紀朝鮮漢字音中的遺存, 『民族語文』 1985年 5 期, 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4, 『조선어 한자어음 연구』(서광학술자료사)에 조선한자음의 원류로 改題)
- 박동규(1995), 『고대국어 음운연구 I』, 전주대학교출판부
- 朴炳采(1968), 古代 三國의 地名 語彙, 『白山學報』 5

- 박창원(1987), 가라어와 관련된 몇 문제, 『加羅文化』 5,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 박창원(1995), 고대국어(음운) 연구 방법론 서설, 『國語史와 借字表記』, 太學社
- 박창원(1996), 고대국어의 치음, 『國語學』 27
- 宋基中(1995), 古代國語 漢字音에 관련된 몇 가지 관찰,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 宋 敏(1990), 漢字音,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 梁柱東(1943), 『古歌研究』, 博文出版社(再版, 1954)
- 俞昌均(1980),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 I』, 啓明大學校出版部
- 俞昌均(1983),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 II』, 啓明大學校出版部
- 俞昌均(1991), 『삼국시대의 漢字音』(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53), 민음사
-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李基文(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
- 李基文(1972a), 『國語史概說(改訂版)』, 民衆書館(1978, 塔出版社)
- 李基文(1972b),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1977, 塔出版社)
- 李敦柱(1990), 鄉歌 用字 中の ‘賜’字에 대하여. 『國語學』 20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담출판사
- 李丙燾(譯)(1983), 『三國史記 上·下』, 乙酉文化社
- 李丙燾(譯)(1984), 『三國遺事』, 廣曹出版社
- 李炳鈺(1982),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螢雪出版社
- 최희수(1986), 『조선한자음연구』, 목단강: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嚴學宥(1984), 周秦古音結構(稿), 『音韻學研究』 1, 北京:中華書局
- 余迺永(1985), 『上古音研究』,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王 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珍華·周長楫(編)(1993), 『漢字古今音表』, 北京:中華書局
- 丁聲樹(編)(1981), 『古今字音對照手冊』, 北京:中華書局
- 周法高(主編)(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藤堂明保(1967), 上古漢語의 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 1)』, 東京:大修館書店
-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의 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 1)』, 東京:大修館書店